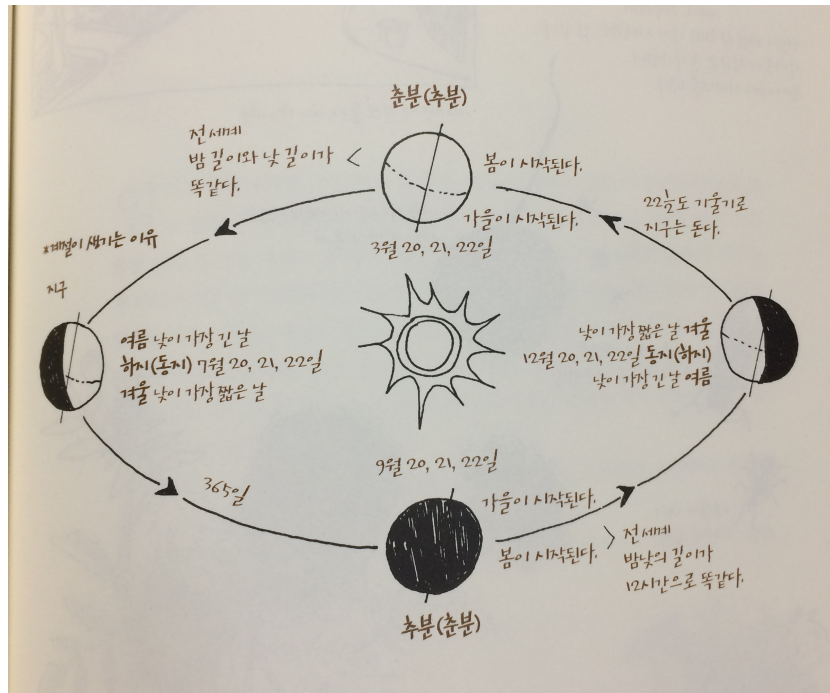


사계절 자연 관찰 일기 쓰기

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것들 - 내가 사는 동네나 익숙한 곳들,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새와 동물들 - 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해 보인다.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와 정반대가 된다. 우리는 보기 드문 동식물이나 화려한 볼거리, 멀리 떨어진 곳들에 더 많이 가치를 두는 것 같다. 물론 둘 다 각각 다른 만족을 주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다. 하지만 ~우리가 늘 가는 곳은 꼭 우리가 관심을 두고 돌봐야 한다.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, 자신이 사는 곳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입기 때문이기도 하다.

- The Parish Maps Project, London, 1987 -

===== 지속적으로 쓰는 일기=====



1.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주변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직관을 일깨워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주제를 선택하자
 - 가까이 있는 자연을 답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 말고도 주변의 살아 있는 것들,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까지 알게 된다. 각 요소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생활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상세하게 기술해 보자. 그러면 주변 세계와 하는 상호작용을 알게 된다.
2. 계절 일기를 쓰자
 - 계절의 변화야 말로 현재 쓰고 있는 자연관찰 일기를 지속하도록 이끌어 줄 수

있는 가장 분명한 주제가 될 수 있다. 바깥 세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, 달이 바뀔때 마다 얼마나 완벽한 순환이 일어나는지, 그리고 그 후 방식은 같을 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차이가 드러나며 어떻게 다시 새로운 순환이 되는지 목격할 수 있다.

- 계절일기의 주제 : 달관찰 , 하늘에 대한 정보 따라잡기, 특정 사물에 대한 계절탐구

===== 사계절의 일기 =====

1. 봄 일기

1) 봄에 관찰할 수 있는 것들

-풀 : 가까이에서 푸른 싹들이 얼마나 일찍 모습을 드러내는가?

천천히 산책하며 땅에서 자라나는 초목을 그려보자

- 나무 : 꽃눈이 팽창해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그려보자.

새로 난 잎의 생김새는 어떠한가? 나무, 관목, 상록수에 남아 있어 아직도 볼 수 있는 열매는 어떤것들인가? 어느 곳에 있는 나무들이 더 일찍 잎을 내미는가?

- 날씨와 계절 : 날씨, 달의 모양, 강수량, 일출과 일몰에 대해 기록해본다.

2) 나 자신에 대한 느낌: 봄의 날씨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?

새로 난 초목의 성장, 되돌아 오는 철새들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?

나에게 봄을 상징하는 현상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자.

2. 여름일기

: 여름은 자연 관찰 일기를 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다. 여름 휴가, 그리고 방학 중에 그림을 그릴 여유를 한껏 부려보자.

1)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것들

- 초목 : 양지에서 자라는 것과 음지에서 자라는 것을 구분하여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다.

- 나무 : 여러가지 나무 형체를 그려보자.

잎이 달린 상태의 나무형체를 겨울에 골격만 남은 나무를 그렸던 그림들과 비교해 본다.

내가 사는 곳에도 비슷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가?

- 동물 : 곤충, 파충류, 상서류를 포함해서 내가 일기를 써 나가는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그려보자. 여름이면 그 동물들은 무엇을 하는가?

- 날씨와 계절 : 어두운 밤 별자리를 익혀본다. 또한 구름 모양을 꼼꼼히 관찰하고 구름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보자.

2) 나 자신 : 여름 날씨는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가?

잠자리, 여름태풍, 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?

3. 가을 일기



1) 가을에 관찰할 수 있는 것들

- 식물 :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는 초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 어떤 초목이 씨앗을 맺었는가?

- 나무 : 단풍이 드는 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 색깔과 생김새가 다른 나뭇잎 다섯개를 그려보자

- 새 : 어떤 새들이 가까이에서 사는가?

- 날씨 : 어떤 모양의 달이 어느때 보이는가? 구름의 모양을 그리고 하늘의 색깔을 기록한다. 어떤 형태의 구름이 어떠한 날씨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자.

2) 나 자신 : 가을 날씨는 어떤 느낌을 주는가? 가을 색으로 물들어 가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?

4. 겨울 일기

: 다른 계절에 비해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, 관찰해보면 차츰 나무의 앙상한 형체, 동물의 흔적들, 풀들의 말라버린 잔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.

1) 겨울에 관찰할 수 있는 것들

- 풀 : 말라버린 줄기로 남겨진 풀들을 구별해보자.

- 나무 : 다양한 종류의 상록수와 낙엽수를 윤곽그리기 하면서 특유의 형태를 알아보자. 눈에 띄는 잔가지들과 잎눈, 나무껍질이나 열매가 있다면 조사하고 그려보자.

2) 나 자신 : 겨울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기록해보자. 추위, 눈, 얼음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?

5. 생태월간지 작은것이 아름답다에서 소개하는 달이름

: 절기를 중심으로 한 달이름으로, 매 달 그에 걸맞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. 각각의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연 관찰 일기를 작성해봐도 좋을 것 같다.

1 월_ 밀렵, 먹이부족, 서식지 파괴로 위기에 처한 <야생동물 살리는 날>

2 월_ 시골농부, 도시농부 모두 한 해 농사를 계획하고 토종씨앗을 지키는 <씨앗 나누는 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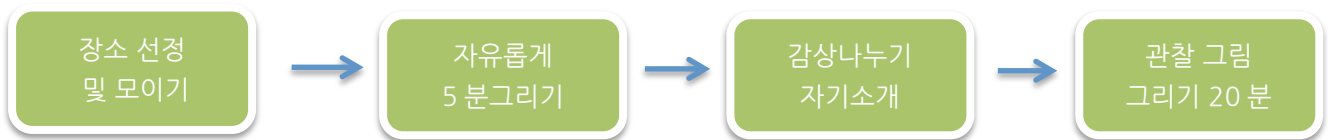
3 월_ 사라지는 꿀벌, 열매를 맺게 하는 <꿀벌 지키는 날>

4 월_ 핵전기와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되찾는 <로그아웃의 날>

5 월_ 신발을 벗고 생명을 품은 흙 기운을 느끼는 <맨발로 흙 밟는 날>

- 6 월_이웃과 지구를 위한 공유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<공유하는 날>
- 7 월_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알고 숲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하는 <나무 껴안는 날>
- 8 월_지하수를 마르게 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생수를 사먹지 않는 <생수병 없는 날>
- 9 월_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다시 쓰는 즐거움을 맛보는 <고쳐 쓰는 날>
- 10 월_농부와 함께 열매를 거두며 자연과 농부에 감사하는<열매 거두는 날>
- 11 월_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한 호흡 천천히 속도를 늦추는 <느려도 좋은 날>
- 12 월_일터와 이웃과 소박한 집밥 먹으며 마음을 전하는 <이웃과 집밥 나누는 날>

===== 함께 모여 쓰는 자연 관찰 일기 =====



<자연 관찰 일기 모임 순서>

1. **장소 선정**
 - 1) 장소는 식물이 있는 문화재의 후원, 혹은 소음이 적은 공간으로 선정한다
- 야외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좋다.
 - 2)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재나 시민 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검색해 봐도 좋다.
2. **자유롭게 5분 그리기**
 - 1) 공간을 파악하고 그리기의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 단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.
 - 2) 주변의 자연 중 눈에 띄는 것을 골라 그려본다.
3. **감상나누기와 자기소개**
 - 1)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뒤 모여서 그림과 함께 자기소개를 나눈다.
4. **관찰 그림 그리기**
 - 1) 날씨, 일기, 온도, 소리, 냄새 등 여러가지 미션을 각자에게 부과하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(관찰하며) 천천히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

5. 관찰 그림 감상 나누기

1) 각자의 그림에 대한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유한다.

-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그린 그림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할 시간을 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다.



<성북동 자연 관찰 일기 두번째 모임, 2016. 10. 15>